

조선대, 올 상반기 굵직한 성과 호남권 1위 명문사학 금지 다져



조선대학교가 2020학년도 상반기에 굵직한 성과를 거두며 호남권 1위 명문사학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조선대의 상반기 성과는 네이처 인덱스 연구경쟁력 순위 호남제주권 사립대학 1위,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최우수 등급 획득,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사업 선정, 교육부 고교교육기여대학 사업 13년 연속 선정,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개별 강좌 전국 최다 선정, 9년 연속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 선정, 간호학 전공교재 몽골 국정교과서 채택, 과기부 '큐브위성경연대회' 지역대학 유일 선정, 체육·예술 교육기부 호남제주권 거점대학 3년 연속 선정, 첨단에너지공학과·인공지능공학과 신설 승인 등 10건이다.

조선대는 최근 상반기 성과를 담은 초대형 현수막을 공대 제1호관에 내걸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코로나19로 원격수업 해보니 콘텐츠 활용도 ↑ 수업 몰입도 ↓

전남도교육청, 대응실태 설문 원격수업주간 등 온·오프라인 탄력운영·복합 교육과정 필요

전남지역 일선 학교 교원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된 온라인 원격수업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생들의 수업 관심도와 몰입도가 떨어지고, 인성교육과 생활지도에는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

이 지난 8~11일 전남지역 교원 1930명, 학부모 1297명, 학생 1310명 등 모두 453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학교 방역과 온라인 수업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교원들은 원격수업의 장점(복수 응답)으로 80.1%가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활용과 공유, 41.3%가 '수업 녹화'로 반복학습 가능 등을 꼽았다.

반면 원격수업의 단점으로는 '학생의 수업 관심도와 몰입도 저하'(36.0%), '인성교육과 생활지도의 한계'(27.3%), '학습피드백 등 개별화 교육 한계'(18.1%) 등을 지적했다.

특히 65.9%는 '원격수업 확대 시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 심화'를 가장 크게 우려했으며, 원격수업의 현장안착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59.2%), '합리적 평가지침 마련'(44.8%)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온라인수업 기간 중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외부유혹을 이기고 학습에 몰입하기 ▲선생님과 상호작용 ▲수업 내용의 이해 등을 꼽았다.

학부모들은 ▲접속 지연 ▲컴퓨터 등 장비활용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고, 향후 태블릿PC 등 수업기기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병행을 비롯한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과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수업친화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제고, 원격수업전담팀 운영 등을 제시했다.

전원권 전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장학관은 "원격수업 본격 도입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집단 간에 정보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태블릿PC 등 원격수업 기기 제공과 연수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재발에 대비해 원격수업 주간운영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교원 ±2.2%p, 학부모 ±2.8%p, 학생 ±2.7%p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개발·운영

광주·전남대학 처음 '내달 1일부터 시행'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코로나19 자가진단 모바일 앱을 지역 대학 최초로 자체 개발해 운영한다.

29일 광주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내달 1일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은 하계방학 기간에 대면 강의가 필요한 학생과 교직원에게 우선 적용되며 2학기부터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포해 등교 전 미리 자가진단을 실시,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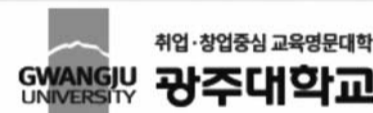
자가진단 내용으로는 ▲열(37.5도 이상) 또는 발열감 ▲기침 등 의증상 ▲해외여행 유무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 여부 ▲동거 가족 중 자가격리자 유무 등이며 총 5가지 질문 가운데 1개의 증상이 있을 시 학교 출입이 불가능하다.

자가진단 결과 출입이 불가한 학생과 교직원은 광주대 '코로나19 긴급 대응팀'에 관련 내용이 통보되며,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관리 및 코로나19 예방 조치에 나선다.

이와 함께 광주대는 하계방학 기간 동안 각 건물마다 출입구를 일원화하고 발열 검사소를 12군데로 확대 설치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자가진단하기



※ 이 설문지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의 몸에 열이 있나요? (해당사항 선택) 단, 기저질환 등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 발열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는 제외

37.5도 미만

37.5도 이상 및 발열감

2. 학생에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나요? (해당사항 모두 선택)

호남대, '다문화 사회와 연구 공동체' 주제 공동학술대회

운영 교수 주제발표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 인문사회과학연구소는 최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에메랄드홀에서 '다문화 사회와 연구 공동체'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연구재단(NRF) 후원으로 열린 이

번 공동학술대회는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리빙랩 연구팀 공동주관으로, 각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이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과 실천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지원 사업 연구책임자인 운영 교수는 '초연결 사회에서의 인문학적 리더십 능력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연구'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FTA 실무 인력 양성사업 광주여성 학생 15명 선발 산자부·코트라 주관

광주여성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2020 취업 연계 자유무역협정(FTA) 실무 인력 양성 사업'에 선정돼 자유무역 관련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3학년 학생 15명을 선발했다.

광주여성에 따르면 서울여상을 비롯한 전국 7개 특성화고가 이번 사업에 선정됐고, 호남지역에서는 광주여상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광주여상은 지원금으로 받은 2300여만원의 자유무역협정(FTA) 이론 교육(65시간)과 수출입 기업견학 및 현장 실습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여상은 지난해에도 '자유무역협정(FTA) 실무 인력 양성 사업'에 선정돼 학생 15명을 선발했다. 이 중 5명의 학생들은 베트남 호치민·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해외무역사무소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수출입 업무를 체험했다. 또 선발된 15명 중 12명은 현재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실무 교육을 거쳐 (주)아폴로산업, (주)센추리산업, (주)와이앤지, 엘앤에스(주) 등의 기업에 취업했다.

김전수 광주여성 상 교장은 "우리 광주여상은 학생들의 다양한 꿈을 응원하고, 학생들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분야의 취업처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여상은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광주에서 가장 높은 65.24%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